

중국명문감상



방송통신대학교 황인옥
inok8444@hanmail.net

중국명문감상

➡ 출석수업 범위 : 漁父辭, 陳情表

➡ 과제: 6과(춘야연도리원서)와 12과(애련설)의 원문과 해석 등을 手記로 써서 제출
강의시간에 자세한 설명 예정

➡ 제출날짜 : 11월 1일 (월) 18:00

➡ 제출방법: 학사정보 온라인 제출

➡ 문의: inok8444@hanmail.net

작자소개

- * **굴원**, 이름은 **평**
- * 최초의 우국시인, 초사의 시조,
- * 대표작품 : 이소(離騷)
- * 전국시대 초(楚) 회왕의 삼려대부
- * 정적들에게 추방, 멍라수에 투신.
- * 단오절에 굴원을 기림(粽子, 龍舟競賽)

작품소개

조정에서 추방당한 굴원이 방랑중에 만난 어부와 체세관에 관하여 나누는 이야기

- * 등장인물 : 굴원, 어부
- * 어부의 입장: 세속과 타협, 與世推移
- * 굴원의 입장: 곧고 결백한 처세, 我獨淸
- * 조사계통으로 산문체의 변체

屈原이 旣放_{하여} 遊_於江潭_{하고} 行吟澤畔_{할새}
顏色憔悴_{하고} 形容枯槁_{어늘} 漁父見而問_之
曰 子非三閭大夫與_아

潭: 못 담.

澤: 못 택.

畔: 두둑 반.

憔: 파리할 초. 悴: 파리할 취. 槁: 마르고.

문법설명:

旣: 이미, 과거형 旣放: 이미 추방당하다.

於: 처소격, 於+장소, 시간, 대상, 조건, 상태 등

而: 용언과 용언 연결, 見而問

子: 그대, 2인칭 대명사

非~~與(=歟): ~~가 아닌가? (歟, 그런가 여)

何故^오至於斯^오 屈原曰 舉世皆濁^{이어늘} 我獨
清^하 衆人皆醉^{어늘} 我獨醒^{이라} 是以見放^{이로라}

斯: 이 사. 濁: 흐릴 탁 ↔ 清: 맑을 청
見: 당할 견. 醉: 취할 취 ↔ 醒: 술깨 성

문법설명:

何故: 무슨 까닭으로

舉世: 온 세상

是以: 이 때문에, 이런 까닭으로

見: 見+동사, 見+放 추방을 당하다. 피동형

漁父曰 聖人_은 不凝滯於物_{하고} 而能與世
推移_{하나니} 世人皆濁_{이어든} 何不泥其泥而揚其波
_{하며} 何不飮其糟而齧其醢_오 何故_로 深思高舉_하
_여 自令放爲_오

글자 설명

凝: 엉길 응.

滯: 막힐 체.

推: 밀 추.

泥: 흐릴 굴, **휘저을 굴**

泥: 진흙 니. **흙탕물**

揚: 오를 양, **일으킬 양**

飮: 먹일 포. **마시다**

糟: 술 지게미 조.

齧: 마실 철

醢: 삼삼한술 리

舉: 들 거, **쳐신하다.**

令: **~로 하여금 ~하게 하다.**

漁父曰 聖人_은 不凝滯_於物_{하고} 而能與世
推移_{하나니} 世人皆濁_{이어든} 何不(澠其泥而揚其
波)_{하며} 何不(飣其糟而齧其醢)_오 何故_로 深思
高舉_{하여} 自令放爲_오

문법설명:

凝滯: 엉키고 막히다.

於: ~에 대하여 物: 세상의 만물

與世推移: 세상을 따라 상황에 맞게 변한다.

何不: 어찌 ~하지 않는가?

而: 澠而揚 / 飣而齧

令: 令+동사, 令+放 추방되게 하다. 사역형

何故~爲: 무슨 까닭으로 ~하였는가?

屈原曰 吾聞^之하니 (新沐者^는 必彈冠^{하고}
新浴者^는 必振衣)^라 安能以(身之察察)^로
受物之汶汶者乎^아

彈: 탄알 탄, 털다. 察察: 깨끗한 모양
汶汶(문문): 더럽고 지저분한 모양

문법설명:

之: 그것, 대명사 新沐者 ~ 必振衣

安 ~ ~ 乎: 어찌 ~ ~ 하겠는가?

以: ~로, ~로써

身之察察(굴원) ↔ 物之汶汶者(당시 조정)

寧赴湘流하여 葬於江魚之腹中이언정 安能
以皓皓之白으로 而蒙世俗之塵埃乎아

赴: 달릴 부

皓: 흰 호

湘: 강이름

塵: 티끌 진

葬: 장사지낼 장

埃: 티끌 애

문법설명:

寧: 차라리 ~ 할지언정

於: ~에서

安~~乎: 어찌 ~~하겠는가?

皓皓之白: 희디흰 결백한 몸 (굴원)

以: ~로써

蒙: 입다 뒤집어 쓰다. 피동

漁父莞爾而笑_{하고} 鼓枻而去_에 乃歌曰 滄
浪之水清兮_{어든} 可以濯吾纓_{이요} 滄浪之水濁
兮_{어든} 可以濯吾足_{이라고} 遂去_{하여} 不復與言_{하다}

莞: 빙그레 완 枻: 노 예, 뱃전 濯: 씻을 탁
纓: 갓끈 영

문법설명:

莞爾: 빙그레 웃는 모양 (爾=然)

兮: 운율, 어기를 잠시 멈춤, 辭, 賦에 쓰임

可以+(동사): (동사) 하면 된다.

창랑지수: 淸(태평시대) ➡ 濯吾纓, 벼슬함
濁(난세) ➡ 濯吾足, 은둔함

陳情表

작자소개

이밀: 字 令伯, 촉한에 출사 상서랑이 됨.

조모 봉양으로 벼슬사양, 조모 사후 한중태수가 됨

작품소개

이밀이晉 武帝에게 올린 상주문

할머니의 손에 양육된 이밀이 조모의 병환으로 벼슬을 사양하는 글.

조모에 대한 효심이 담긴 글

臣密言_{하노이다} 臣以(險釁)_{으로} 夙遭閔凶_{하여} 生孩六月_에 慈父見背_{하고} 行年四歲_에 舅奪母志_{하니} 祖母劉閔(臣孤弱)_{하여} 躬親撫養_{이라} 臣少多疾病_{하여} 九歲不行_{하고} 零丁孤苦_{하여} 至於成立_{하니이}
다

險釁(험흔): 죄 많은 신세 閔凶(민흉): 재앙, 부모의 죽음

夙: 이를 속

遭: 만날 조

生孩: 어린아이.

行年: 나이

舅: 외삼촌 구

躬親: 몸소, 친히

撫: 어루만질 무 零丁: 쓸쓸하게

문법설명:

以: ~로

見背: 버려짐을 당하다. 아버지가 죽다

於: ~에

既無叔伯_{하고} 終鮮兄弟_라 門衰祚薄_{하여} 晚有兒
 息_{하니} 外無朞功強近之親_{이오} 內無應門五尺之
 僮_{이라} 煢煢孑立_{하여} 形影相弔_{어늘} 而劉夙嬰疾病_{하여}
 常在牀褥_{하니} 臣侍湯藥_{하여} 未嘗廢離_{하니이다}

衰: 쇠할 쇠 祚:복 조 兒息:자식
 朞功: 기(1년복) 공(功服 5, 9개월복), 친척
 僮: 아이 동(=童)/ 煢煢: 외로운 모양(煢:외로울경)
 孑:외로울 혈/ 形影: 형체와 그림자/ 相弔: 의지할 곳 없음
 嬰:뒹을 영, 걸리다(=撓) 牀褥(상욕): 침상과 요, 병석

문법설명:

既~終~: 이미 ~하고, 끝내 ~하다

之: 관형격 ~하는 ~의

逮奉聖朝_{하여는} 沐浴清化_{하여} 前太守臣逵_는 察臣孝廉_{하고} 後刺史臣榮_은 舉臣秀才_나 臣以(供養無主)_로 辭不赴命_{이러니} 詔書特下_{하사} 拜臣郎中_{하고} 尋蒙國恩_{하여} 除臣洗馬_{하시니} 猥以(微賤)_{으로} 當侍東宮_{이라} 非(臣隕首所能上報)_{니다}

逮: 미칠 체

沐浴: 흠뻑 입다.

主: 주인 주 맡아하다.

尋: 이윽고 심

猥: 함부로 외, 외람되게

聖朝(성조): 성스러운 조정, **썸나라**

察: 살필 찰, **추천하다.**

拜: 절 배, **벼슬을 주다**

除: 섬돌 제, **제수하다.**

隕: 떨어질 운, **죽다**

문법설명:

以: 때문에, 이유로

以: ~로

臣具以表聞_{하여} 辭不就職_{이러니} 詔書切峻_{하여} 責臣逋慢_{하고} 郡縣逼迫_{하여} 催臣上道_{하며} 州司臨門_{하여} 急於星火_라 臣欲(奉詔奔馳)_{인댄} 則劉病日篤_{이요} 欲(苟順私情)_{인댄} 則告訴不許_{하니} 臣之進退_는 實爲狼狽_{로소}
이다

辭: 사직하다.

逋: 달아날 포

催: 재촉할 최

星火(성화): 별뚝별, **빠르고 급함**

奔馳(분치): 빨리 달려가다

篤: 도타울 독, **위독하다.**

苟: 잠시

實: 실로

狼狽(낭패): 어찌할 줄 모르다.

문법설명:

於= ~보다, 형용사+於是 비교로 쓰임

欲: 하고자하다. 조동사

之: ~의, 관형격

伏惟聖朝_가 以(孝)治天下_{하사} 凡在(故老)_{에도} 猶蒙
 矜育_{하니} 況臣孤苦_가 特爲尤甚_{이리이까} 且臣少事僞朝
 하여 歷職郎署_나 本圖宦達_{이요} 不矜名節_{이라} 今臣은 亡
 國賤俘_로 至微至陋_{어늘} 過蒙拔擢_{하여} 寵命優渥_{이라} 豈
 敢盤桓_{하여} 有所(希冀)_{리이까}

伏惟(복유): 엎드려 생각하건대 矜: 불쌍히 여길 긍
 事: 섬길 사, 圖: 도모할 도 宦達(환달): 관리로 출세함
 矜: 자랑할 긍 俘: 포로 부 過: 과분하게
 拔: 뽑을 발 擢: 뽑을 탁 渥: 두터울 악
 寵: 사랑 총 盤桓(반환): 머뭇거리다 希冀(희기): 바라는 것

문법설명:

猶~況~: 오히려 ~에게도, 하물며 ~은

豈敢~有: 어찌 감히 ~가 있겠는가?

但以(劉日薄西山)_{하여} 氣息奄奄_{하니} 人命危淺_{하여}
 朝不慮夕_{이라} 臣無祖母_면 無以至今日_{이요} 祖母無
 臣_{이면} 無以終餘年_{이니} 母孫二人_이 更相爲命_{이라} 是
 以區區_{하여} 不能廢遠_{이로소이다}

薄: 엷을 박

奄奄(엄엄):가냘프니

更: 다시 경, 번갈아

廢: 폐할 폐

西山:수명이 얼마 남지 않다.

淺: 얇을 천, (危淺 위태롭다)

區區(구구): 작디 작은

문법설명:

但以: 다만 ~때문에

無以+(동사): (동사) 할 수 없다.

是以: 이 때문에

不能: 할 수 없다.

臣密_은 今年四十有四_요 祖母劉_는 今年九十有六_{이니} 是臣盡節於陛下之日_은 長_{하고} 報劉之日_은 短也_라 烏烏私情_{으로} 願乞終養_{하노이다}

陛: 섬돌 폐

烏烏私情(오조사정): = 反哺之孝

길러준 어미새에게 은혜를 갚는 까마귀의 정

願乞(원걸): 원하옵건대 빕니다. 원하고 바라다.

終: 끝까지

문법설명:

有: 나이에서 십과 일 단위 뒤에 쓰임

之: ~하는

於: ~에 대하여

臣之辛苦_는 非獨蜀之人士_와 及二州牧伯_의 所(見明知)_요 皇天后土_가 實所(共鑑)_{이시니} 願陛下_는 矜憫愚誠_{하사} 聽臣微志_{하소서} 庶劉僥倖_{하여} 保卒餘年_{이면} 臣生當隕首_요 死當結草_{리이다} 臣不勝犬馬怖懼之情_{하여} 謹拜表以聞_{하노이다}

辛苦(신고): 괴로움 皇天(황천): 하늘 后土(후토): 토지신
 實:실로 鑑: 볼 감 愚誠(우성): 어리석은 정성, 겸손
 庶: 바라건대 僥倖(요행): 다행히
 隕首(운수): 목숨을 바치다.
 怖懼(포구): 두려워하다. 聞: 아뢰다.

문법설명:

二州:양주와 익주

非獨: ~뿐만 아니라

及: ~와 , 과 / 명사와 명사 접속

감사합니다.

